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7월 15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인터뷰

“살아보고 싶은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장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철학으로 제6대 후반기의장 취임 2년차를 맞고 있는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재선의원으로서 유도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의 박성열 의장은 먼저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은 중앙정치에 예측이나 당리당략보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생활정치를 통해 주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살아보고 싶은 강북구’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정치적 신념이라고 말했다.

의장님이 생각하는 생활정치란 무엇인지요.

“생활정치란 조그만 일에서부터 주민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집행부와 합치하면서 생산적인 일은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크게는 강북구에는 북한산과 우이천이 있음으로써 정서적 가치와 일상의 여가생활과 건강을 돌볼수 있다는 점과 과거와 오늘의 역사·문화·관광을 접목시켜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킴으로써 행정지수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일도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게는 대문을 나서면 거리와 골목길이 깨끗할 때, 가장 가까운 장소에 주차장이 있을 때,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있는 박성열 의장.

의의 정답 의회에서 의원 한분 한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을 섬기며 지원하고, 주민의 따뜻한 베푼이 되도록 주민 친화적 의정을 펼쳐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제6대 후반기 의회는 ▶연구인대주택 입주가족의 명의를 변경 완화 건의안 ▶연구인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시비 지원 건의안 ▶의·사상자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주민참여 감사관(용보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본 특도 침탈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제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대비하여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트위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들의 곁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소통 의정 그리고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사회 곳곳에 희망을 만들어 내는 희망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 강북구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복지 및 교육, 개발 등 세 분야 사업인 강북구 꿈나무 장학재단 운영, U-도서관 구축사업, 북한산역사 문화 관광벨트사업, 지하철역 주변 역사관광개발, 우이~신설간 경전철 사업, 4.19 국민문화제 성공적 개최, 청결강북운동 전개 등의 구정사업을 상호협력 하여 한층 더 발전된 강북구가 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제6대 강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성원을 보내주신 34만 강북구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북구의회가 34만 강북구민의 대의기구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동북일보 4면

내 집의 하수도 물이 잘 내려갈 때,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에게 일지랄을 창출해 줄 때,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느낄 때 등 일상에서 주민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일이 바로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6대의회 후반기에서 의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저는 의장으로서 역대 의회를 지켜왔을 때 6대의회가 제일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고 상생의 길을 걷는 자체가 의원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6대의회 전반기에는 유군성 전 의장이 터를 잘만들었고 후반기에는 제가 잘지켜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의회이기 때문에 일단의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지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활동해왔던 성과에 대하여.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민

특히, 제6대 의회에서는 강북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구정 질문에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하는 등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구민들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민주적인 의회상을 수립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1주년을 맞은 가장 큰 소감

“먼저 강북구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벌써 한 해가 되었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약한자의 편에서 소외된 계층의 편에서 일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체 의원들과 노력하여 강북구민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고, 구민들의 대변자로서 정말 열심히 일한 1년이었습니다. 또한 의원세미나 활성화와 현장의정 활동강화 등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냈으며 강북구의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계획이 나 라오에 대하여

“남은 1년의 재임기간에도 구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채택과 많은 관심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또 구민들을 위한 의정이 되고 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남은 일년여 기간에도 ‘바른의정, 열린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라는 슬로건에 진정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알찬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크게 듣고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강북구 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북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숙된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rmail.net)

살아보고 싶은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제6대 강북구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의장으로 선출된 박성열 의장을 만났다. 아쉬웠던 순간이나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었던 만큼 구의회 전체로 보더라도 발전적인 미래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한 해로 어느 해보다 뜻 깊었다는 박의장이자

▲ 후반기 의장으로서 활동해왔던 성과를 소개해 주시지요.

△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민의의 전달 의회에서 의원 한분 한분의 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을 섬기며 지원하고, 주민의 따뜻한 벗이 되도록 주민 친화적 의정을 펼쳐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제6대 후반기 의회는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의 영의변경완화 건의안 ▶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사비지원 건의안 ▶ 의·사상자등 배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 구민참여 감사관(온보즈맨)운영에 관한 조례 ▶ 일본 독도 침탈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제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국정질문 등을 대비하여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트위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제6대 의회에서는 강북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구정 질문에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하는 등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주민들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민주적인 의회상을 수립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강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 인가요?

△ 먼저 강북구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시작하기도 벌써 한해가 되었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약한자의 편에서 소외된 계층의 편에서 일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전체 의원들과 노력하여 강북구만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고 구민들의 대변자로서 정말 열심히 일한 1년이었습니다. 또한 의원세미나 활성화와 현장의정 활동 강화 등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냈으며 강북구의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6대 의회가 참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의 회의이며 시끄러울 소지가 있는 곳의 의회입니다. 6대 전반기 유군성 의장님이 틀을 잘 만들어 놓았기에 후반기에 들어서도 깨끗한 강북구 의회를 지켜 나가고 있기에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 구의원들이 구민의 혈세로 세미나 및 공무원 해외여행 실시 후 주민들을 위한 세미나 및

공무원해외여행이었는지 주민들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요.

△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만들어야지요. 주민 혈세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제도에 대해 배제 또는 한시적인 적용에 대한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 일장일단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천제도는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가고 지방자치치가 살아남는다. 공천제 폐지 보다 각 등을 대표하는 소선거구제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위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 개원초기에는 네 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정치적 논리에 의한 갈등과 반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3명 의원 모두가 이해와 타협, 상생과 화합으로 정책의 합리성을 도모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 제6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의회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계획이나 각오에 대하여 한 말씀해 주시지요.

△ 남은 1년의 재임기간에도 구민들의 곁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소통의정 그리고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사회 곳곳에 희망을 만들어 내는 희망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할 것이

며, 현재 강북구가 증명추진하고 있는 복지 및 교육, 개발 등 새 분야 사업인 강북구 꿈나무 장학재단 운영, U-도서관 구축사업, 북한산 역사문화 관광벨트사업, 지하철도 주변 역사관광개발, 우이~신설간 경전철 사업, 419 국민문화제 성공적 개최, 청결강북운동 전개 등의 구정사업을 상호협력 하여 한층 더 발전된 강북구가 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강북구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 제6대 강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성원을 보내주신 34만 강북구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북구 의회가 34만 강북구민의 대의기부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재질과 많은 관심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유자경성(有志竟成)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알찬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크게 듣고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강북구 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북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숙된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 국제 안전도시 공인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박성열 의장



강북구 우이동 도당제 제례 모습



어버니날 행사에 참석한 박성열 의장이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다.